

강인규 시장 '행복나주 만들기' 시민과 머리 맞대고 해법 찾는다

6일~27일 20개 읍면동 돌며 주민들과 소통의 장 마련
지역현안·애로사항 격의없는 대화 통해 시정 적극 반영

강인규 나주시장이 시민과 함께 만나 '행복나주 이야기'를 펼친다. 강 시장은 오는 6일부터 '행복나주 이야기'를 주제로 관내 20개 읍면동에서 연 두순방을 갖고 2017년 나주시의 시정운영방침 7대 기초 공유 및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번 연두순방은 6일 오전 남평읍을 시작으로, 7일 금천면을 방문한 뒤 오는 27일까지 하루 1~2개 지역씩 이뤄질 예정이다. 강 시장의 이번 읍면동 연두순방은 지역의 현안문제 및 주민 애로사항 등을 지

역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시장은 특히 이번 순방에서 기존의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단순 반복적인 형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지역내 최우선 해결 현안 등을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과 실천 경험들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열린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1일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민선 6기 시장 철학에 따라 민원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겠다"면서 "시민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민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법과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민선 6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총 건의사항 1481건을 접수받아 완료 996건, 추진중 114건, 장기과제 114건, 처리불가 257건등으로 분류됐으며, 미완료한 과제에 대해서는 민선 6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건의 민원은 농로포장, 도로개설 등 경제안전건설분야가 10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민복지 보건 등 총무 분야가 303건, 농업 분야 90건, 기타 20건 순이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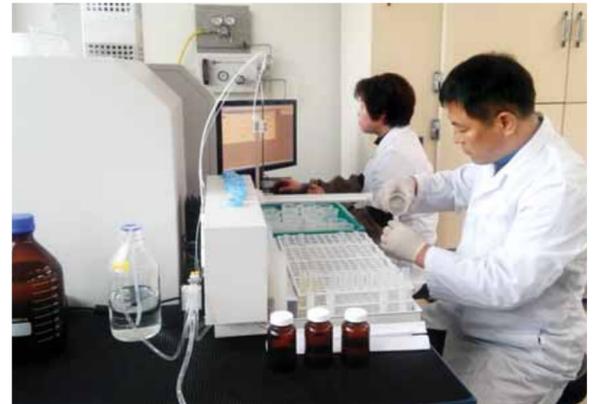
■ 강인규 시장 순방 일정(2월)

일정	읍면동	대화장
6일 오후3시	남평읍	복지회관2층
7일 오전10시	금천면	복지회관2층
8일 오전10시	다도면	복지회관2층
오후3시	봉황면	주민센터1층
9일 오전10시	반남면	복지회관2층
오후3시	영산동	동 회의실2층
10일 오전10시	이창동	중앙교회1층
오후3시	빛가람동	별도섭외
13일 오후3시	노안면	복지회관2층
14일 오전10시	산포면	복지회관2층
오후3시	세지면	복지회관2층
15일 오전10시	다시면	복지회관2층
오후3시	문평면	복지회관2층
20일 오후3시	왕곡면	배테마파크 강당1층
21일 오전10시	송월동	동 회의실2층
오후3시	영강동	동 회의실2층
22일 오전10시	공산면	복지회관2층
오후3시	동강면	복지회관2층
24일 오전10시	금남동	나주농협2층
오후3시	성북동	미도뷰페2층

* 일정·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우리동네 가장 적합한 농작물은 뭘까?

나주시, 농경지 188곳 토양환경 정밀분석 착수



나주시 과학영농센터에서 연구원들이 토양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관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환경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시는 이번 토양환경 분석을 통해 미래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 재배작물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부터 3년간 188곳 농경지에 대한 토양환경 정밀분석을 하고, 지역 토질에 적합한 작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읍면별 특화작목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나주시의 이번 토양환경 분석은 이상기온,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토양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나주시는 농촌진흥청의 '흙토람 시스템'을 활용해 과거 10년간의 읍면별·작물별 대표필지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지역 토양환경을 재분석하고, 기상청의 '나주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를 접목해 지역별 토양환경 정보와 미래 기후 변화에 대응한 동네별 최적화 재배작물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종권 나주시 배기술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법정 리 단위의 토양 물리성과 화학성, 토양특성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읍면동별 기후변화 동향을 전망해 동네별 최적화 재배작물을 제시하는 것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나주시의 귀농인과 농업인이 농작물을 선택하는데 좋은 길잡이 역할과, 효과적인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대책 수립에 기여할 것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소통 글판'에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 보내주세요

20일까지 문안 공모



나주시 빛가람동에 설치된 소통글판.

나주시는 "새봄을 맞아 아름다운 글귀를 통해 시민들의 지친 마음에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글판' 문안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1일부터 20일까지다. 공모내용은 시민들에게 봄의 생명력, 희망, 사랑, 용기를 느끼게 해주는 문안으로, 문학작품에서 발췌하거나 창작한 25자 이내 문구를 작성해 응모하면 된다. 참여방법은 이메일(parkuner@korea.kr) 또는 나주시청 시민소통실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3월 초 발표하며, 시상과 함께 부상으로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등 나주시사랑 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나주시는 지난해, 제1회 '소통글판' 문안을 공모하여 "꿈을 꾸는 시민, 꿈을 이루주는 나주시" 문안을 선정 및 게시해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백호문화관 전시실 리모델링...3월 1일~4월 3일 휴관

나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3일까지 백호문화관을 휴관한다"고 1일 밝혔다. 재개관일은 4월 4일이다. 이번 휴관은 문화관 내 상설 전시실 리모델링과 전시실 소장품 소독, 새 기증 유물 전시 등 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백호문화관은 조선 중기 시인이자 문신인 백호(白湖) 임제(林梯·1549~1587) 선생의 문학사상 등을 기리고자 2013년 건립됐다. 사업비 33억원을 투입했으며 대지 3875㎡ 전체면적 387㎡ 지상 3층 규모로, 수장

고·집필실·문학사랑방·전시관을 갖추고 있다. 상설전시관에는 백호 선생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와 젊은 시절 복암사에서 공부했던 석림정사의 현판 친필글씨, 선생의 문집인 겸재유고 복제본 등이 전시돼 있다. 지난 2014년 제2종 박물관(전남-제30호)으로 등록됐다. 재개관 뒤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제2회 백호 임제 어린이 글짓기 대회와 백호문학제를 열 예정이다. /나주=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남평읍사무소 '찾아가는 복지상담 창구' 호응

41개 마을 경로당 순회 취약계층 상담·지원

복지허브를 이끌어 나갈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된 나주 남평읍사무소가 지역 41개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복지종합상담창구'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종합상담창구'는 이동 취약계층(노인 및 장애인등)에 대한 상담

을 통한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 지원, 복지정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정보 종합안내 및 신청접수 등을 병행하고 있다. 남평읍사무소 관계자는 1일 "예방적 복지 추진 및 주민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복지허브와의 핵심인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복지종합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농업인 월급제 올해 1000농가로 확대

영농시기 감안 3월부터 지급

나주시의 역점 시책 중 하나인 농업인 월급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을걷이 뒤 받을 수매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것으로 원금은 농협이, 이자는 나주시가 부담한다. 나주시는 올해 대상을 1000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 첫해인 2015년 4개 농협이 참여해 162농가(10억5700만원) 농민이 월급을 받았다. 지난해는 12개 농협이 참여해 679농가 농민이 50억6000여만원의 월급을 수령했다. 지난해에는 애초 500명용 목

표 했으나 신청 농가가 많아 대상자를 더 늘렸다. 올해 신청 농가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출하할 벼 대금의 60%를 월별로 나눠 미리 받는다. 금액은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다. 나주시는 벼 매입이 완료된 12월이 되면 농협에 이자(연리 6%)를 보전할 예정이다. 이자는 1억8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1일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과 함께 영농의식 고취, 안정적인 소득 확보 등 효과가 기대 이상"이라며 "영농시기를 감안해 3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플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